

2018년 3월 20일, 남원읍 한남리 한남리노인회관, 문순덕(김은정·정이슬) 조사.

제보자1: 고태행(여, 1942년생, 남원읍 한남리)

제보자2: 고순아(여, 1937년생, 남원읍 한남리)

- 줄거리: 남편이 부인에게 '어머니는 콩죽을 먹으면 돌아가실 것'이라 말하고 오랫동안 집을 비웠다가 돌아와보니 어머니가 살도 찌고 몸이 훨씬 좋아져서 어찌 된 것인지 물어보았다. 어머니는 며느리가 계속 콩죽을 줘서 호강했다고 말했다.

[제보자1] 콩데기아방인지 모르크라. 할망이 있었어. 콩데기할망이주. 콩데기할망인디 서방이 어디 지금 같으민 출장이나 가서 한 달이나 일 년이나 살당 오게 뒷었어. 옛날엔 시어멍 미웠잖아. 지금도 시어멍 아까운 사람 엇어. 하도 시어멍 미우난 그 아방이 나가멍 각시신디

"우리 어머니는 콩죽만 썩그네 멱이면 나 강 오민 죽어불거난 콩죽만 쑤엉 멱이믄 됐다."

나 엊인 때 그렇게 안네도렌. 경 행 나갓주. 강 왕 보난 어멍은 살이 찐 거라.

"아이고, 어머니 나 엊인 때 살아집디가?"

"아이고, 메누리가 콩죽만 쑤엉 주난 나 막 잘 살아지고 살妖怪."

그런 말은 들어낫주게.

[조사자] 콩죽이 진짜 몸에 좋아?

[제보자1] 팥보단 좋은 거 아냐?

[제보자2] 다슴뜰은 팥죽만 주고 이녁 뜰은 콩죽만 주고 팥죽 먹은 사람은 바짝 마르고 콩죽 먹은 사람은 이렇게 살찌고. 콩이 영양가가 좋은 거라.

- 핵심어: 콩죽, 팥죽, 아들, 메누리(며느리), 할망(할머니), 시어멍(시어머니)